

6 종합

의대 '더블링' 해법 찾나 제1의학관 첨단강의실 수업 몰입도 개선 기대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의과대학이 제1의학관 5층에 첨단강의실을 조성한다. 의정갈등 이후 두 학년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의과대학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대생 유급과

복귀가 이어지면서 학년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의예과는 24학번과 25학번이 2학년에 함께 재학하는 구조이며, 두 학년을 합친 인원은 약 154명에 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는 지난 학기부터 '미러링 강의'를 운영해왔다. 미러링 강의는 강의실을 두 곳으로 나눠 한 곳에서는 교수가 대면



제1의학관 대형 첨단강의실 조감도

(사진=의과대학 제공)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강의실에서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의예과 오동인 학과장은 "미러링 수업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학년 간 분리를 요청하

면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업 몰입도에 차이가 있어 대형 첨단강의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강의실은 학생 자율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던 제

1의학관 502·503·504호를 통합해 마련한다. 총 155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로 대형스크린, 강의녹화시스템, 강사 추적 카메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대 행정실은 "첨단강의실에선 기존 방식의 강의뿐 아니라 강의실 간 미러링 강의, 캠퍼스 간 원격강의 등 다양한 유형의 강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은 이외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학과장은 "작년에는 더블링 학년 학생들과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학생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식 소통 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과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리더십, 체력, 해외연수 등 육각형 인재의 완성

모집기간

: 2026.3.3.(화)~2026.4.26.(일)

모집대상

: 남녀 1, 2학년 재(휴)학생

지원대상

: acq.armyofficer.mil.kr

경제적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등 약 2,000만원 지급

* 대학교 장학금 등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문의

: 경희대 학군단 02) 961-0085~6

모바일홍보



지원서접수



의예과 계절학기 수강신청 허용학점 상향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허용학점이 12학점으로 한시적 상향 적용된다. 이는 의정갈등 여파로 발생한 의예과 학생들의 의학과 진학에 필요한 필수 학점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일 개정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른 조치다.

의예과 학생이 의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공 55학점과 교양 26학점을 포함한 총 8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졸업학점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교양 과목 문제가 심각했다. 의예과 오동인 학과장은 "전공과목은 의과대학 내부에서 운영되지만, 교양과목은 휴마니타스를 통해 공통 진행되는 별도 학사일정이기에 계절학기 학점 상향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학기 의대의 연장된 전공수업 학사일정과 교양교과목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 시기가 병행돼 부족학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은 계절학기 이수 한도 상향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태운희 팀장은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은 불가하나 수강 과목 및 허용 학점 등을 조정해 정상 수업을 지원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의대 학생들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절학기 학점 상향이 교육의 질 하락이나 학습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절학기 저녁 시간대 추가 강좌 개설이나 개강·종강 조정 등 운영을 조정한 계획이다. 의과대학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 학과장은 "다행히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의예과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휴마니타스 및 유관부서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정규 학기에도 부족한 교양학점 이수가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내년 3월 신입생 입학 전까지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태 팀장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지원팀과 의대가 노력 중"이라며 "신입생이 입학하는 3월 이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최대한 정상화하고, 9월부터는 교육과정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